

FIXED INCOME ISSUE REPORT

2026. 7. 10.

글로벌채권팀

김지만 Senior Analyst
jiman8.kim@samsung.com



리서치센터 리포트
바로가기

7월 금통위 Preview

만장일치 25bp 인상 예상;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스텝

- 기준 금리는 2.75%로 25bp 만장일치 인상 예상. 5월 금통위 및 이후의 인상 신호 명확해진 만큼, 이번 회의는 단지 실행 단계임
-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terminal rate에 대한 힌트이겠으나, 이번에는 경제 전망 및 점도표 모두 없고, 총재의 평소 발언 스타일 감안하면 힌트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
- 최근의 유가 급락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근원 물가 흐름을 감안, 기준 금리 인상이 백투백 연속 인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

7월 금통위: 기준 금리 25bp 만장일치 인상 결정이 유력

다음주 7/16일 금통위를 앞두고 있다. 당사는 기준 금리가 2.50%에서 2.75%로 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. 5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 의견 2명(장용성·유상대), 성장률·물가 전망 대폭 상향(GDP 2.6%, CPI 2.7%), 점도표 21개 중 19개가 현 수준 상회 등 인상 시그널이 이미 명확했던 만큼, 이번 회의는 '시그널링'에서 '실행'으로 넘어가는 단계다. 이번 회의는 만장일치 인상이 유력하다.

신현송 총재는 7/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"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, 성장세 개선, 금융 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"며 인상 방향을 재확인했다.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성장세 확대,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재확대 등 금융 불균형 우려도 함께 언급해 인상의 논거를 갖춘 상태다.

헤드라인 물가는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 있지만, 한은의 평가가 관건

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.2%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 다만 내용을 보면 식유류·농축수산물 등 공급 측 요인이 주도했고, 근원 물가는 2.4%로 전월(2.5%)보다 오히려 둔화됐다. 미국-이란 종전 합의 이후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대에서 현재 70달러 초반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헤드라인 물가는 정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. 관건은 한은의 근원 물가·수요 압력 평가다. 통방문에서 수요 측 압력을 강조하는 강도에 따라 8월 연속 인상 경계감이 좌우될 전망이다. 당사의 기본 경로는 7월·10월 각 25bp 인상(연말 3.0%), '27년 상반기 2회 추가 인상으로 terminal rate 3.5% 도달이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Compliance Note

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 본 조사항목은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경, 대여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항목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.

삼성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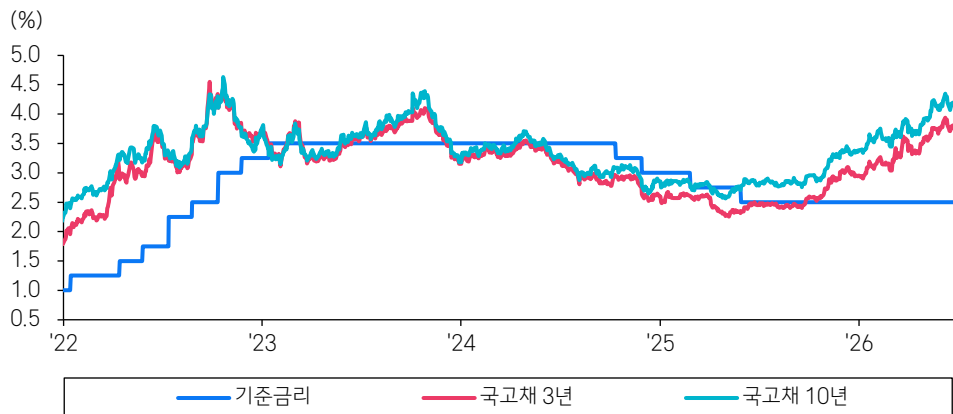
채권시장은 기준 금리 인상 자체보다 인상 속도가 변수

채권시장은 이번 인상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다. 국고 3년물 금리는 3.78% 수준으로 기준 금리 대비 130bp 가까운 스프레드를 나타내고 있으며, 선도 금리는 1년 내 4차례를 초과하는 인상을 반영하고 있다(6월 초에는 최대 6회 인상까지 반영한 바 있으며, 현재 STRIPS 내재 선도 금리도 비슷한 수준).

이미 당사 terminalrate 전망(3.5%, +100bp=4차례) 이상으로 시장이 반영하는 수준으로, 기준 금리 인상 자체가 채권금리를 현 수준보다 더 상승시키는 재료로 작용하기는 어렵다. 오히려 유가 급락과 근원 물가 안정을 감안할 때 통방문·기자 간담회가 시장 기대보다 덜 매파적일 경우,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한 상황이 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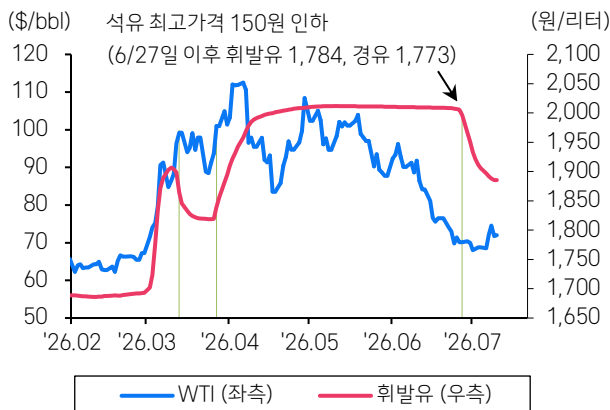
초장기물의 경우는 기준 금리 결정과 무관하게 상대적인 약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. 국고 10년 대비 30년물 스프레드는 지난달 6/5일부터 역전이 해소되기 시작해 현재는 +20bp 수준을 기록 중이다. 보험사의 채권 매수 여력이 줄었고, K-ICS비율 상승에 따라 보험사의 초장기채 매수 유인 자체가 낮아졌다. 향후 추가로 초장기 구간 스프레드가 얼마나 더 확대될지는 재정부의 초장기채 발행량 조절이 변수다.

한국 기준 금리 및 주요 국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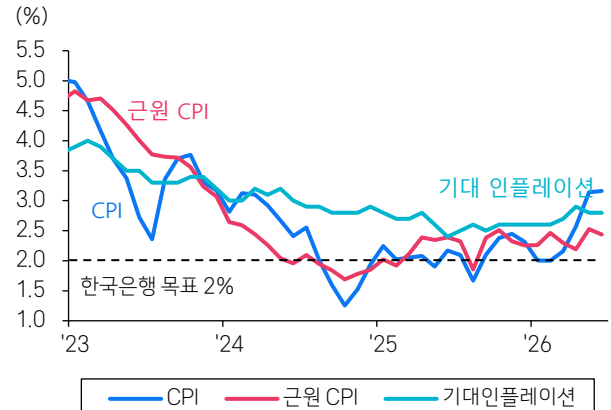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삼성증권

국제 유가와 소매 휘발유 가격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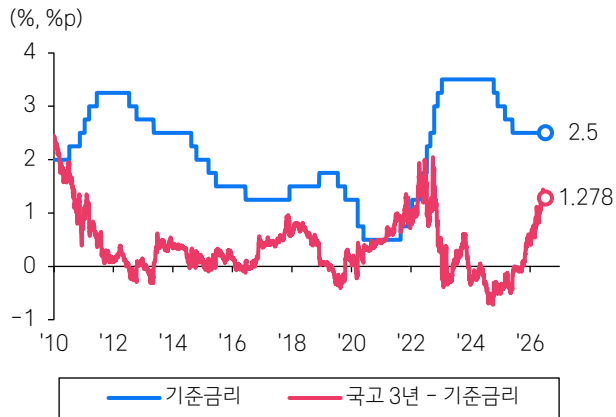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한국석유공사, 삼성증권

소비자 물가 상승률,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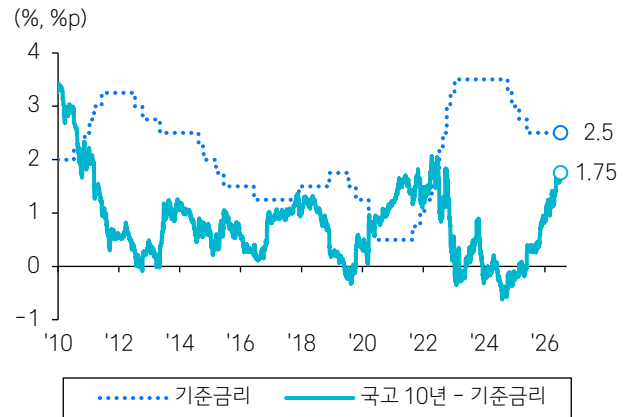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데이터처, 삼성증권

기준 금리 대비 국고 3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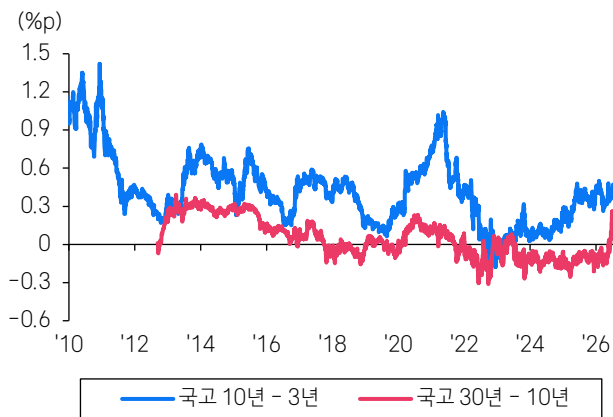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삼성증권

기준 금리 대비 국고 10년 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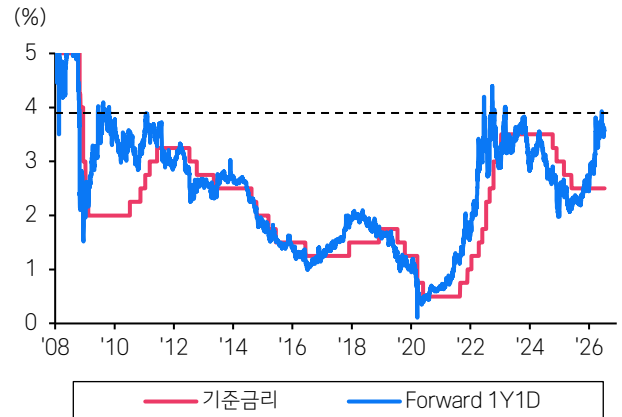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삼성증권

초장기 구간 스프레드 최근 크게 확대


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삼성증권

기준 금리와 선도 금리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삼성증권

삼성증권

삼성증권주식회사

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(삼성전자빌딩)
Tel: 02 2020 8000 / www.samsungpop.com

삼성증권 Family Center: 1588 2323

고객 불편사항 접수: 080 911 0900



Member of
**Dow Jones
Sustainability Indices**
Powered by the S&P Global CSA